

# 백원국 차관, GTX-A 개통 준비 종합 점검회의 개최

## “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점검·준비” 당부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GTX-A 수서~동탄 영업시운전 착수일인 2월 23일 오후 4시 GTX-A 수서 종합상황실에서 국가철도공단, SG 레일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철도공사, 에스알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통 준비 5차 T/F 회의를 개최하고 개통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하였다.
- 3월 30일(금) 개통 예정인 GTX-A 수서~동탄 구간은 지난해 12월 종합 시험운행에 착수하여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모두 완료하고 개통 전 마지막 검증 절차인 영업시운전에 금일(23일) 착수하였다.
- 백 차관은 기관별로 영업시운전, 비상 대응 훈련, 이용자 현장점검 등 개통 전 실시 예정인 중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“개통 이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안전사고는 물론,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세심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하다”면서,
  - “대심도 터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고려, 비상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나리오 없는 다양한 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기관사 등 업무 종사자와 관계기관 모두가 담당 임무를 완벽히 숙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”을 지시하는 한편,
  - “철도선로의 대표적 취약지점인 분기부는 사고 발생 잠재요인이 많고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더 신경 쓸 것”을 강조하였다.
  - 또한, “환승통로, 에스컬레이터, 승강기 등의 중요 지점에는 충분한 안전 요원을 배치하여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마지막으로 백 차관은 “GTX-A의 성공적 개통을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, 전문가, 국민 안전점검단 등 다양한 이용자의 시각에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여기서 나온 쓴 소리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통 전까지 개선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4. 2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